

민주연구원 ‘트럼프 미스터리와 미국 민주당의 성찰’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5월 22일(금), 『트럼프 미스터리와 미국 민주당의 성찰 : 어떻게 상식의 정당이 될 것인가』(이진복 수석연구위원)를 발간했다.
 - 이번 연구보고서는 온갖 스캔들과 구설수, 나아가 내란 선동에 따른 탄핵 소추 등 ‘몰상식의 화신’으로 치부되던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‘상식의 대통령’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는지, ‘트럼프 미스터리’의 본질을 정밀하게 추적. 이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이정표 제시
- ‘트럼프 미스터리’의 실체는 ‘상식’의 선점과 ‘새로운 다수파’ 형성
 - 보고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단순한 돌발 변수가 아닌 치밀한 정치전략의 승리라고 분석. 트럼프는 진보 대 보수라는 양당 체제를 과감히 깨부수고, 이를 ‘상식 대 몰상식’의 구도로 재편.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‘몰상식한 정당’으로 낙인찍는 데 성공했으며, 공화당을 ‘상식의 정당’으로 변모시켜 새로운 다수파를 구축하는 ‘상식의 혁명’ 추구
- 미국 민주당의 위기는 ‘정체성 상실’과 ‘브랜드 파산’에 기인
 - ‘보통 사람의 정당’이었던 민주당이 좋은 놈, 나쁜 놈의 선악 구도를 넘어서는 ‘이상한 놈(The Weird)의 정당’으로 변질되었고, ‘돈 많은 사람의 정당’이었던 공화당은 트럼프를 거치며 ‘진짜 미국인의 정당’으로 변모했다고 진단
- 우리가 나아갈 길은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키는 ‘대중정치’와 ‘온건정치’로 대전환
 - 보고서는 소수의 극성 활동가에 휘둘려 민심을 잃어가는 진영정치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제언. 나아가 대한민국 정당이 어떻게 소모적인 이념전쟁을 끝내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‘상식의 정당’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전략서